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8. 23.(금) 06:00 < 8.23.(금) 석간 > 배포 2024. 8. 22.(목)

파라과이와 통상·산업·에너지 분야 정부협력채널 최초 구축

- 「한-파라과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(TIPF)」 체결
- 브라질에 이어 메르코수르 국가 중 두 번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(TIPF)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23일(금) 8시 서울에서 하비에르 히메네스(Javier Gimenez)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장관과 「한-파라과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(TIPF)」를 체결하였다.

파라과이는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우루과이와 함께 세계 5대 경제 블록인 남미공동시장(MERCOSUR)의 회원국으로 남미 국가 중 높은 경제성장률('23년 4.6%)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, 타 메르코수르 국가 대비 저렴한 임금, 낮은 세율, 유리한 원산지 조건* 등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.

* 파라과이 진출기업(현지 법인)은 원자재, 임금 등의 현지 조달(Local Contents) 비율 40% 충족시 타 회원국에 무관세 수출가능(브라질(60%), 아르헨티나(45%), 우루과이(50%)에 비해 낮은 수준)

특히, 작년 파라과이 신차 모델별 점유율에서 상위 20대 모델 중 한국산이 40%인 8대를 차지하고, 우리 자동차용 케이블 제조업체가 현지 최대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·수출기업으로 성장한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파라과이로의 수출 확대와 메르코수르 역내 제조업 진출 거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.

한편, 이날 체결식 직후 이어진 한-파라과이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은 ▲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TIPF 활용방안 ▲산업·에너지 협력 ▲한-메르코수르 무역협정(TA) 진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TIPF 산하 무역투자협력위원회(TICC)를 통해 협력 의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.

정 본부장은 "이번에 구축한 파라과이 산업통상부와의 협력채널은 양국이 통상, 산업, 에너지 분야 경제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 위한 발판을 최초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, 향후 양국 간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·추진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중남미신시장협력과	책임자	과 장	류동희	(044-203-5630)
		담당자	주무관	이정민	(044-203-563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